

현장중심 농촌지도사업 확대 강화

임실군, 순회지도 차량 6대영농현장 배치... 3대 추가 확보 예정·신기술 보급체계 구축

임실군이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확대,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현장 순회지도 차량 6대를 영농현장에 배치하여 신속한 농업 현장 애로 해결과 효율적인 신기술 보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예산 2억원(국·도비 1억원)을 확보해 현재까지 차량 3대를 배치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3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현장 순회지도 차량은 각종 진단 및 지도 장비들이 갖

춰져 있어 영농현장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 보급 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기술 수요 만족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이 차량은 기존 이륜차량(오토바이)을 대체한 것으로 이륜차량은 계절적, 기상적 여건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안전한 차량 도입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현행 농업기술 보급체계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현장 순회지도 차량 배치를 통하여 순회 및 대면 위주의 기술 보급 서비스로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하여 천소영 과장은 "현장중심형 지도사업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순창군 남녀 소프트테니스팀이 '제102회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하야시다 리코 선수는 혼합복식, 개인복식, 단식 경기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소프트테니스팀 전국대회 경기 맹활약

순창군, 여자팀 하야시다 리코 단식·복식·혼복 3관왕 등

순창군 남녀 소프트테니스팀이 '제102회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저력을 발휘하며 전국 소프트테니스계를 뒤흔들었다.

이 대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문경시 국제 소프트테니스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소프트테니스의 최강자를 가리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에서 순창군청의 특급 용병 하야시다 리코 선수는 혼합복식, 개인복식, 단식 경기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해 3관왕의 위업을 드러내며 소프트테니스 여제임을 여실히 입증했다.

또한, 지난 10일에 치러졌던 단식 경기에서는, 지난 2024 순창 한국 실업 소프트테니스 춘계연맹전 결승전에서 패했던 육천군청 이수진 선수와 다시 맞붙어 4:0으로 가볍게 승리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올해 창단된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은 전력을 강화하고자 실력과 리더십 모두 뛰어난 선수를 찾는 중에 일본에서 최강자로 불리었던 하야시다 리코 선수를 영입했으며, 그

결과 리코 선수가 순창군청 이름표를 달고 뛴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것이다.

특히, 하야시다 리코 선수는 순창군에서 빠른 적응을 위해 쉬는 날에도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하며 스스로 보완점을 찾아내며 훈련에 매진하는 등 승부사 기질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순창군청 남자 소프트테니스팀은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했으며, 개인복식에서 윤형욱·김병국 선수와 오승규·진인대 선수가 나란히 3위를 차지했다. 황저우 아시안게임 단식 동메달리스트인 윤형욱 선수도 3위를 추가하여 선수단 모두 고른 성적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의 이름을 빛내준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체육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이의신청 및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위해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원식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주재로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안건은 2022년 운남, 용산, 금월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6건 6필지) 및 2023년 금전, 건곡, 금과 남계, 북흥 정산지구 경계결정(2,174필

지, 149필지, 3,024.9㎡)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확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달 19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추진하는 금과 내용, 풍산 대가, 풍산 두송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현재 한국토지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바른땅 지적측량업체에서 현지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제39회 서울 국제관광전' 서 전략적 마케팅 추진

전주, 군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과 손잡고 관광홍보 나서

순창군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 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열띤 홍보전을 펼쳤다.

올해 제39회 서울 국제관광전에는 300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이 참여했으며, 순창군은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과 함께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기간 동안 순창군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순창의 주요 관광지가 새겨진 홍보물 및 장류 캐릭터로 만든 기념품과 제19회 순창장류축제를 리플릿 제공을 통해 순창의 대표 축제가 제19회 순창장류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여 순창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렸다.

또한 제19회 순창장류축제와 순창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은 홍보영상을



순창군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 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송출하고 순창 튜브 구둑 이벤트를 통해 홍보부스를 찾은 관람객에게 순창 고추장과 순창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며 순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서울 국제관광전 참가를 통해 순창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으며 각종 박람회 참가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창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차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6월에 개강하는 2차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4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3차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4월부터 6월까지 운영 중인 1차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이어 2차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6월부터 10월까지 35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인문교양, 문화예술, 성인진로 등 분야별로 이론(learn)·저런(learn) (평생학습관에서 △

영어회화 △업사이클(재활용)·홈패션·양재 △디저트(빵, 쿠키)만들기 △서예·문인화·한국화·캘리그라피 △천연화장품만들기 △프랑스자수·퀵트공예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통기타 △영화 인문학 등 26개 과정과 어디나 교실(외부공간 연계)에서 △우쿨렐레/하모니카 △생활도예 △세라믹아트·포크아트 △플루트 △공예(캘트,한지)·심리압화 △목공기구 만들기 등 9개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

할 예정이다. 성인이면 누구나 교육신청이 가능하나 교육 인원 50% 이상 참여시 강의를 개설되며, 수강 신청은 남원시 통합예약·신청 시스템(https://www.namwon.go.kr/reserve)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회당 1,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유공자와 그 유족,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은 1인 1강좌에 한해 수강료를 면제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063-620-5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토양분석·비료 사용 처방서 무료 발급

임실군이 토양분석과 비료사용 처방서를 무료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작물의 생육도모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토양 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비료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양분석 시기는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 농한기에 되거나 비료를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이 좋다.

토양 시료는 필지당 5개의 지점에서 겹표를 1~2cm 정도 걷어내고, 논·밭은 15cm, 과수는 30cm 깊이에서 총 500g을 채취하여 골고루 혼합하여 봉투에 담고 지번, 면적, 재배작물,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54-5) 2층 종합검정실로 가져오면 된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분석 항목은 pH(산도), EC(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석회소요량 등이며, 연평균 3,500점의 분석을 하고 있다. 작물을 재배할 때는 각 항목별로 과잉 또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실=진홍영기자

임실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임실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의료원 직원 및 응급복지 관리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응급처치 발생 시 대처법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응급상황에서 실제로 대입할 수 있도록 성인 모형을 활용한 직접 실습이 이뤄졌다.

/임실=진홍영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